

[방글라데시] 2022. 5월 경제 동향

(주방글라데시대사관)

< 경제 동향 요약 >

- ✓ (경제 현황) △방글라데시 정부는 회계연도 2022/23 경제성장률을 7.5%로 전망함 △방글라데시 GDP 규모는 현 회계연도 4,650억불, 1인당 GDP는 2,824불을 기록함 △방글라데시 GDP 대비 세금 징수율은 7.6%로 남아시아 중 가장 낮은 수준 △5.11일 기준 외환보유고는 419.2억불
- ✓ (수출입) △5월 수출액은 38.3억불로 전년 동기 31억불 대비 23.2% 증가 △5월 방글라데시로의 송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.15% 감소하여 18.8억불로 집계 △1-4월 간 해외노동자 파견 수는 426,55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6% 증가
- ✓ (개발협력) △현 회계연도 2021.7- 2022.4월간 대외원조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58% 증가한 77.1억불을 기록함.
- ✓ (산업/인프라) △ 방글라데시는 대 유럽연합(EU) 제3위, 전 세계 8위의 자전거 수출국 △ 방 철도청(BR)은 현 회계연도에 마감될 예정인 20개 사업 중 13개의 공사시한을 연장하여 사업 이행 부진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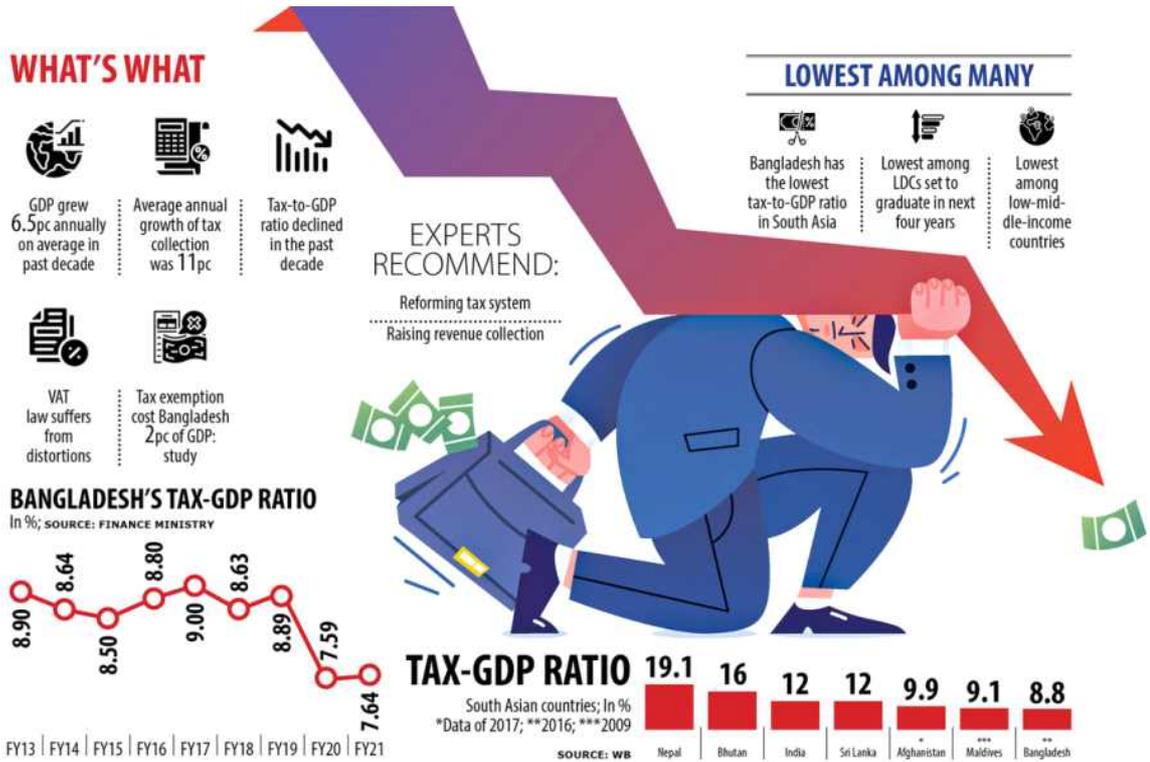
1 주요 경제 현황

□ 방글라데시 GDP 성장률, 7.25%

- 방글라데시 통계청(BBS)에 따르면, 방글라데시 GDP 성장률은 2021/22 회계연도 7.25%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 -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4월 2021/22 회계연도 7.2%, 2022/23 회계연도 7.5% 경제성장률을 예측함.
- Fitch Solutions Group은 차기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.5%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지난 전망률 7.2% 보다 감소한 수준임.

-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GDP 규모는 전 회계연도 4,160억불에서 증가해 2021/22 회계연도 4,650억불을 기록함.
- 2021/22 회계연도 1인당 GDP는 전 회계연도에서 2,591불에서 9% 증가하여 2,824불을 기록함.

□ GDP 대비 낮은 조세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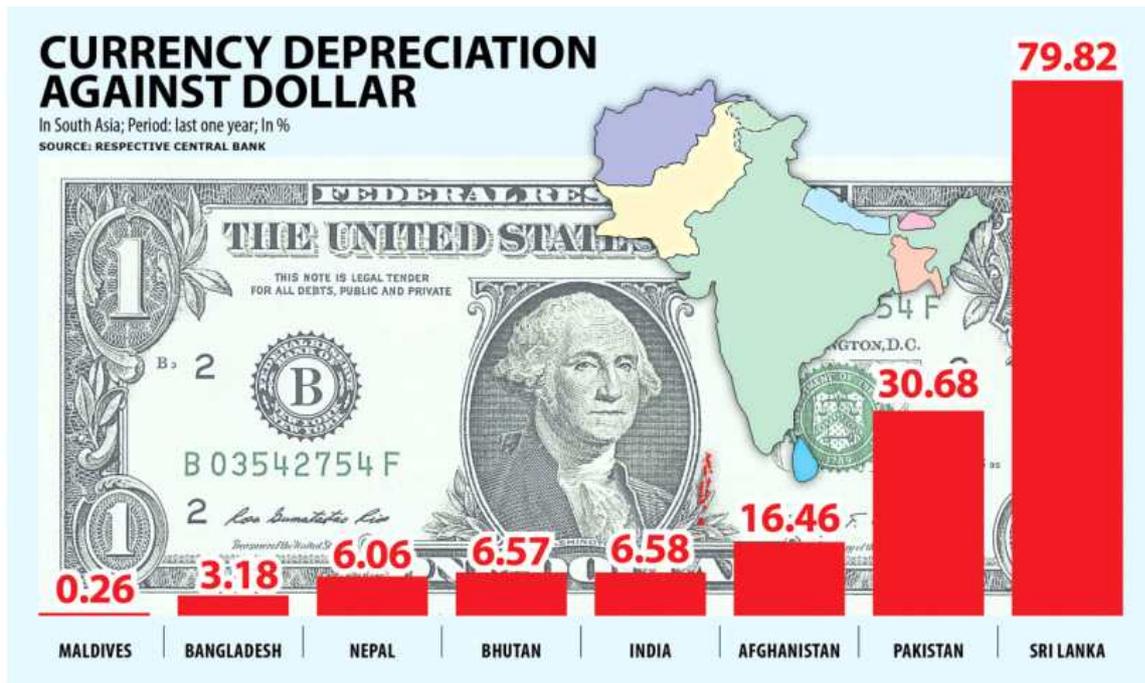


- 방글라데시 GDP 대비 세금 징수율은 7.6%로 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함.
- 방글라데시 정책연구소(Policy Research Institute of Bangladesh)의 Ahsan H Mansur 총책임자는 GDP 대비 세금 비율이 16-17%가 되어야 하며 세금 징수를 늘리지 못한 것이 방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.
- 또한, 방글라데시는 740만명이 세금고유번호(TIN)를 가지고 있으나 그 중 230만명만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개혁이 필요한 상황.

□ 외환보유고 감소

- 5.11 기준 방글라데시 외환보유고는 419.2억불로 이는 2021.12월말 461.5억불에서 크게 감소한 수준임.
 - 방 외환보유고는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방 정부는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해외 출장 중지 및 수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잠정중단을 결정하고 방 중앙은행은 5.22 모든 은행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함.
 - 또한, 방 정부는 비필수 품목 135개(꽃, 과일, 가구, 화장품 등)의 수입 관세를 20% 인상하며 동 품목들의 수입 자제를 요청중이며 물가안정 및 저소득층의 필수 품목 구매 지원을 위해 정제된 콩, 유채씨, 카놀라유 및 올리브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철회 및 쌀겨기름(rice bran oil)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림.

□ 환율



- 방글라데시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미화/타카 환율 평가절하를 소폭 적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.
 -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위적으로 타카 가치를 강화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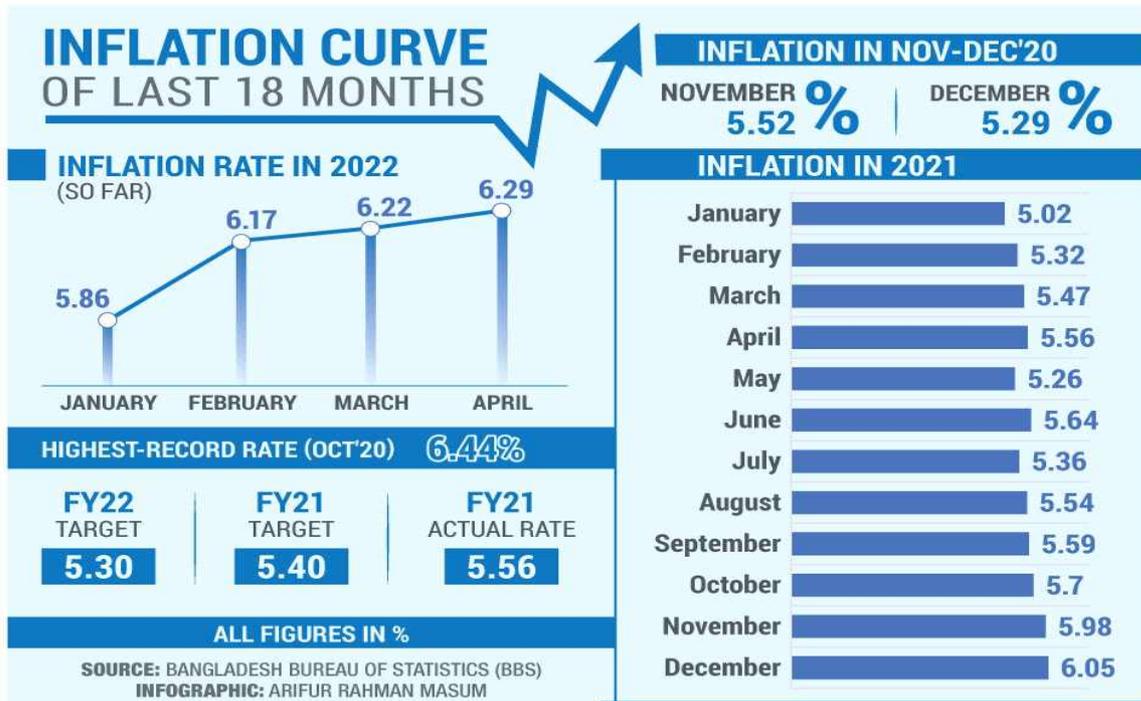
있다고 경고함.

- 몰디브를 제외한 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은 6%- 79.82%의 미화 대비 환율 평가절하를 경험한 반면, 방글라데시는 3.18%로 다소 낮게 평가절하됨.
- 5.21 기준, 미화/타카 환율은 87.50TK이며 전년동월에는 84.80TK를 기록하였음.

※ 중앙은행은 2022.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환율을 인하한 바 있음.

- 방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에 대해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환율을 변동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,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을 밝힘.
-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해외노동자 송금 감소와 수출업자들의 애로 해소 필요성에 부응키 위한 것으로 평가됨.

□ 인플레이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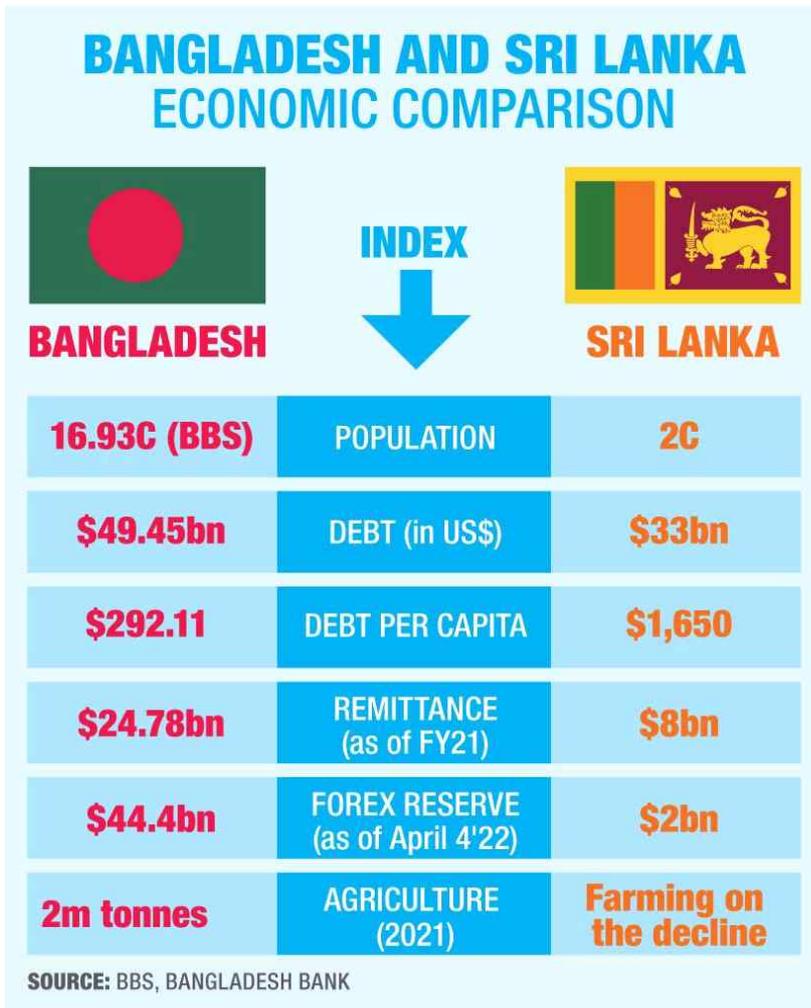
- 2022.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6.29%로 18개월 만에 최대치이며, 3개월 연속 6% 이상 기록함.

- 이는 세계 시장에서 식품 가격 증가, 불의 재부상, 가계 수요 증대 등에

기인한 것으로 도시지역에서는 5.75%, 지방에서는 6.59% 증가하였음.

- 방 정부는 2022/23 회계연도 인플레이 목표를 5.5%로 상정하고 있으나,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환율절하로 인해 2021/22 회계연도 목표치인 5.7% (당초 목표치는 5.3%였으나 추후 수정)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□ 방글라데시-스리랑카 간 경제 현황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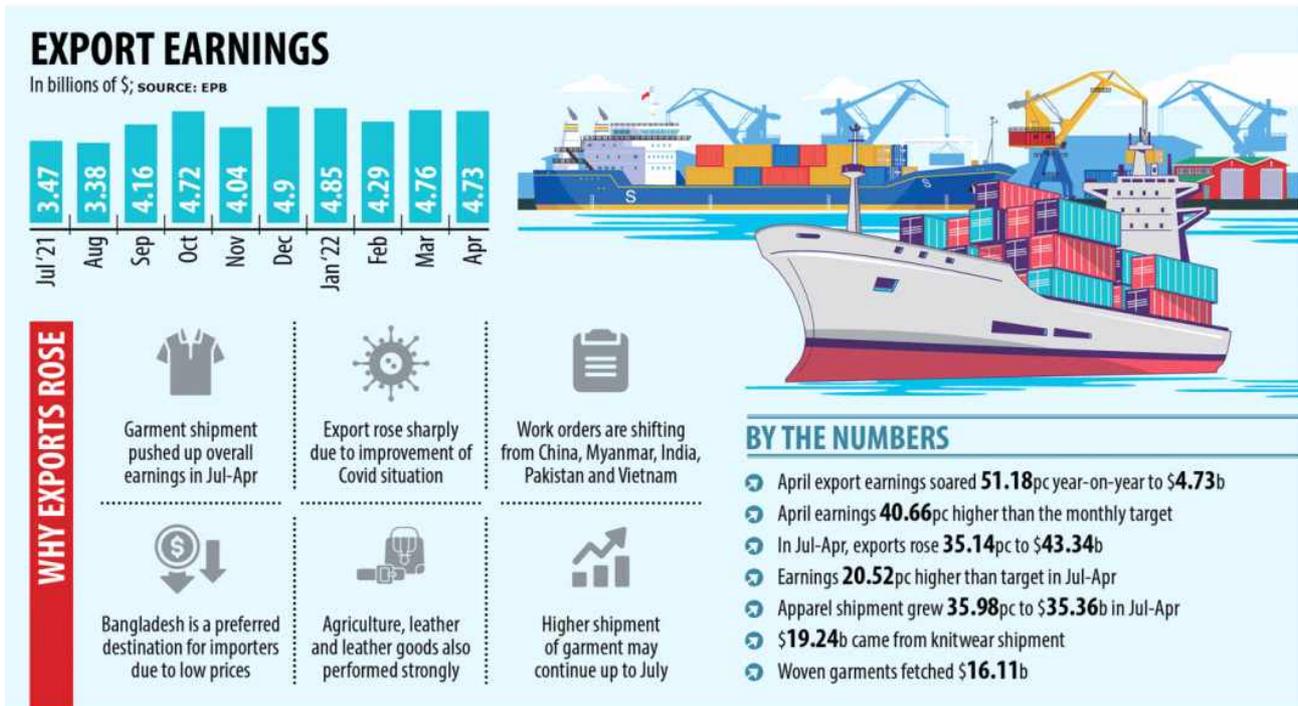


- 방 중앙은행은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간 경제 상황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가채무는 292.11불, 스리랑카는 1,650불이며 현 회계연도 송금액은 방글라데시 247.8억불, 스리랑카 80억불을 기록함.

- 또한, 4.4일 기준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고는 444억불, 스리랑카는 20억불을 기록하였음.

2 수출입 동향

□ 수출 호조세



○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.

-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(EPB) 조사에 따르면, 4월 방글라데시 상품 수출액은 의류, 섬유, 신발 등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51.18% 증가하여 47.3억불을 기록함.

- 한편, 5월 수출액은 38.3억불로 전년 동기 31억불 대비 23.24% 증가한 수준이나, 목표치인 38.9억불에 미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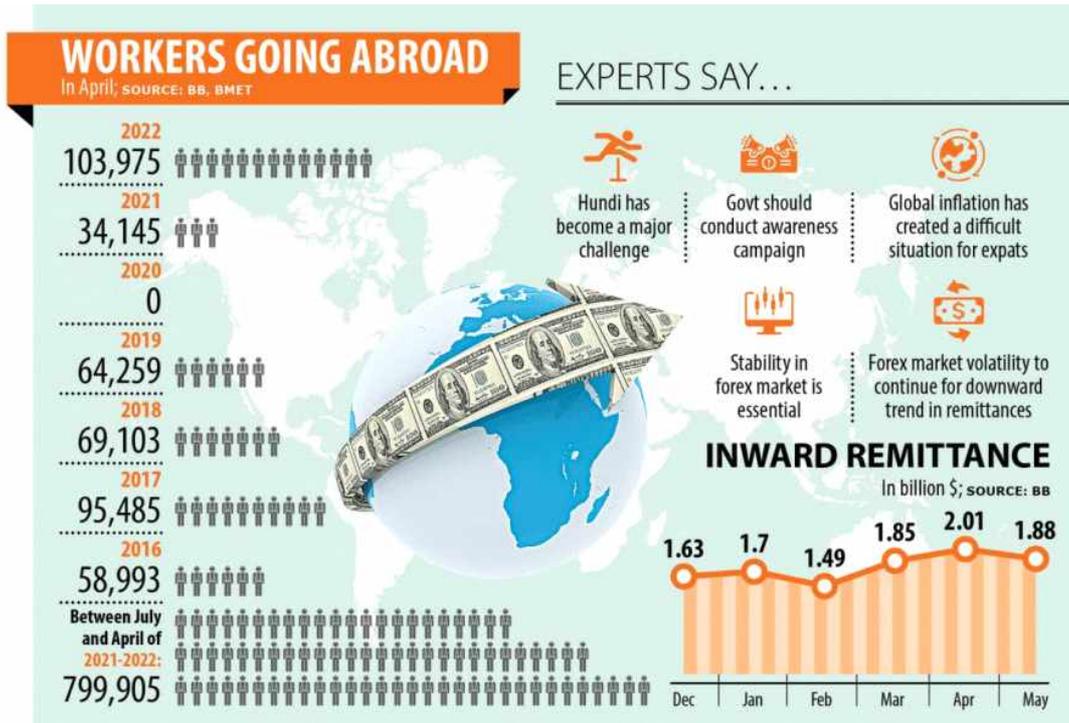
※ 방글라데시는 현 회계연도 8개월간 4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함.

○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의류 공급망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, 생산 원가가 오르면서 중국, 인도, 파키스탄, 베트남 등지에서 방글라데시로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
- 방글라데시 의류협회(BGMEA) 부회장 Md Shahidullah Azim에 따르면, 현지 의류공급업자들이 상당한 양의 주문을 받고 있으며 7월까지 수출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- 한편, 현 회계연도 11개월간 총 수출액은 471.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4% 증가한 가운데, 의류 수출은 34.87% 증가한 385.2억불 기록함.
- 무역적자는 2021/22 회계연도 10개월(7월~4월) 간 53% 증가한 275억불 (수출 411억불, 35% 증가, 수입 686.7억불, 41% 증가)

□ 해외노동자 및 송금 동향



- 세계은행의 “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” 보고서에 따르면, 방글라데시의 해외노동자 송금액은 세계 7위를 기록함 (상위 6개국은 인도, 멕시코, 중국, 필리핀, 이집트, 파키스탄).
- 5월 방글라데시로의 송금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.15% 감소하여 18.8억불로 집계되었으며 현 2021/22 회계연도 첫 11개월 동안 191.9억 불을 기록함.
- 한편, 방 고용노동부(BMET)에 따르면 4월 한달 간 42만 6천여명의 이주노동자가 해외로 떠났으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26만 8천명, 오만 56,830명, 아랍에미리트 51,531명이 파견됨.
- 또한, 1-4월 간 해외노동자 수는 426,55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6% 상승한 수준임.

3 개발 협력

□ 대외원조 비중 증가



○ 현 회계연도 7월~4월간 대외원조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58% 증가한 77.1억불(전년 동기 48.6억불)로 이는 최고치였던 2018/19 회계연도의 61억불보다 높은 수준임.

- 러시아는 제재 가운데서도 10.5억불 차관을 지원했으며, 이는 대부분 Rooppur 원전 지원을 위한 것임 (11309.2억 TK 가운데 4월까지 5129.2억 TK가 지출되었으며, 동 공사는 4월 기준 46% 완료되었고, 2024년 1호기 운영 개시, 2025년 2호기 개시 목표).

※ 동 프로그램은 러시아 Rosatom과 build-and-finance 계약으로 추진(로사툼이 76%)

○ ADB는 총 19.9억불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억불을 지원함.

- 일본은 제2의 공여국으로 17억불을 제공했으며, 이는 다카 지하철 및 마

타바리 항구,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등에 지원한 금액임.

- 3위는 세계은행으로 11.6억불 지원, 이의 가장 많은 부분이 코로나19 대응 지원임.

○ 방글라데시 정부는 FY22 대외원조 목표액을 129.8억불로 정했으나, 이후 15억불로 조정함.

- 방글라데시는 FY14~FY17 간 연평균 30~35억불의 대외원조를 수원함.

○ 현재 원금과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, 7월~4월간 17.5억불을 상환함 (지난해 동기는 16억불 상환).

4 산업/인프라 동향

□ 방글라데시 자전거 수출



○ 방글라데시는 대 유럽연합(EU) 제3위 자전거 수출국이며 전 세계 8위의 자전거 수출국임.

- 자전거 수출량의 약 80% 정도 가량이 EU 27개국으로 수출되며 나머지는 인도, 미국, 아랍에미리트, 호주 등으로 수출됨.
- 2007년 방글라데시는 약 35.5만여대를 수출했으며 2020/21 회계연도에 총 100만여대의 자전거를 수출함.
- 수출 실적 또한 점차 증가하여 2019/20 회계연도 8,284만불, 2020/21 회계연도 1.3만불을 기록함.

□ 방글라데시 철도청 사업 이행 부진

- 5.7 방글라데시 철도청(BR)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방 철도청은 현 회계연도에 마감될 예정인 20개 사업 중 14개 사업 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높으며 동 14개 사업 중 13개는 공사시한을 연장한 바 있음.
- 현재 방 정부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인도,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방글라데시 철도청이 시행 중인 40개 사업 중 26개 사업 기한이 연장된 상황이며, 통상 기한 연장을 할 때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새로운 부품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오르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.
- 한편, BR은 한국 현대 로템(Hyundai Rotem)과 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나 동 협약 체결 이후 방 정부측에서 비 양허성 차관(non-concessional loan) 대신 소프트 론 지급을 원함에 따라 현대 로템이 사업에서 철수 의사를 밝힌 적이 있음.
- 이와 관련, 방 전문가들은 방 정부의 자금 지원 협약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의 위험성을 제기함.

□ ILO 협약 비준

- 방글라데시는 최근 ILO 제 138호 협약을 비준해 최소 근로연령을 14세로 정하였으며 이는 RMG 부문 산업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/끝/